

■ 주요 기사

○ 2017년 한국직업전망 관련(3건)

조선	의사·간호사 늘고, 초·중등 교사 줄고
한경	고령화·4차산업 덕에 간병인·SW개발자 '유망직업 1순위'
경향	IT·의료직 늘고 교사·농어업직 줄어

○ 일자리 창출 관련(2건)

조선	서비스업 新고용창출 효과 크게... 기득권·규제에 막혀있다 수출 잘되는데도 일자리 안 늘어나는 3가지 이유
----	--

■ 주요 칼럼 · 기고

○ 노동권 관련(3건)

한겨레	[왜냐면] 사장님 줄게, 노동자 다오 / 김학열 민주노총 지부장
	[왜냐면] 지금 헌법에 '노동'과 '노동자'가 없다 / 김선수 변호사
	[왜냐면] 2017년 한국에서 노동조합이란? / 신인수 변호사

○ 일자리 창출 관련(2건)

조선	[시론] 일본처럼 인구 줄면 취업난 해결되나?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매경	[사설] 헛다리 짚은 대선후보들 일자리 공약에 던진 경총의 一鍼

■ 언론별 동향

매체명	주 제	내 용	
조선	노동	제목	상장사 평균 급여, 10년 새 45% 늘어 B2면
		내용	코스피시장 상장사 직원 평균급여가 지난 10년 새 3000만원대 후반에서 5000만원대 중반으로 평균 45% 증가. 직원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업종은 통신업으로 8357만원. 그다음으로 금융업(8142만원), 전기가스업(7656만원), 건설업(6043만원) 순
	고용 복지	제목	서비스업 新고용창출 효과 크데... 기득권·규제에 막혀있다 A3면
		내용	KDI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이 통과되면 2030년까지 일자리가 최대 69만개 생길 것으로 전망. 그러나 2012년 처음 발의된 뒤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가 20대 국회에 다시 제출됐지만 아직도 해당 상임위에 머물고 있음
		제목	수출 잘되는데도 일자리 안 늘어나는 3가지 이유 A3면
		내용	고용창출효과가 특히 낮은 반도체, 석화 위주의 호황과 늘어나는 글로벌 고용, 세계 1위 수준의 공장 로봇화로 수출 호황에도 고용은 크게 늘지않음
		제목	의사·간호사 늘고, 초·중등 교사 줄고 A14면
내용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5년까지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 전문직 일자리는 약 10만명 늘어나고, 학원강사와 초·중등 교사, 대학교수 등 교육 관련직은 3만명가량 감소할 것		
제목	[시론] 일본처럼 인구 줄면 취업난 해결되나? (이지평 LG 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A35면		
내용	일본정부는 그간 젊은층의 직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기업과 구직 청년을 매칭해주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산업 구조 조정과 신성장 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음		
동아	고용 복지	제목	복지 공약에만 20조대 소요... 재원 방안은 '투명稅政' 구호뿐 A8면
		내용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내놓은 복지 관련 공약을 이행하는 데 매년 24조원, 22조원 소요. 돈 쓸 곳이 이처럼 많은데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은 △탈루 세금 과세 강화 △공평 과세 구현 등 수준
매경	고용 복지	제목	경력직 채용 핵심은 즉시 '현장투입'...세밀화 그리듯 경험 전달을 A30면
		내용	사람인이 기업 321개사 대상 조사 결과, 올해 채용시장 키워드는 신입보다 경력직 선호가 뚜렷. 자신만의 실무 경험을 자세히 나열해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할 뿐 아니라, 신입으로 지원할 때도 과거 경력 적극 내세워야함
		제목	[사설] 헛다리 짚은 대선후보들 일자리 공약에 던진 경총의 一鍼 A39면
		내용	경총이 어제 각당 대선후보에게 일자리 확충 방안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전달. 특히 노동시장 유연화로 일자리 정책은 노동시장 유연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인데 정부 예산으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대선후보들의 공약과는 차이가 큼. 일자리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경직된 노동시장 개혁이 선행되어야 함

매체명	주 제	내 용	
한경	고용 복지	제목	고령화·4차산업 덕에 간병인·SW개발자 '유망직업 1순위' 2면
		내용	한국고용정보원은 한국 대표 직업 199개의 10년간 일자리 전망을 담은 '2017 한국직업전망'을 24일 발표했다. 인구 고령화가 고착화하면서 간호사 간병인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 관련 직종이 유망 직업 명단에 대거 이름을 올렸다
한겨레	노동	제목	대한항공 전직 조종사, '10년 노예계약' 소송 일부 승소 19면
		내용	서울남부지법은 대한항공에 다니다 퇴사한 김아무개씨 등 조종사 15명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및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
		제목	[왜냐면] 사장님 줄게, 노동자 다오 / 김학열 민주노총 지부장 25면
		내용	민주노총 건설노조로 뭉친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4월 총파업을 벌이며 '노동기본권'을 요구. 국회 앞 농성농성도 벌였는데, 많은 국회의원들이 농성장을 다녀갔고, 대선후보들도 '노동기본권'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진전이 없음
		제목	[왜냐면] 지금 헌법에 '노동'과 '노동자'가 없다 / 김선수 변호사 25면
		내용	헌법 전문에 우리 사회가 지향할 가치의 하나로 '노동 존중'과 '평등사회 건설'을 명시해야. 이와 함께 노동3권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해야. 제33조 제1항에서 노동3권의 목적으로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하여"와 함께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명시해야
제목	[왜냐면] 2017년 한국에서 노동조합이란? / 신인수 변호사 25면		
내용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제1항을 준수해 달라는 것		
경향	고용 복지	제목	IT·의료직 늘고 교사·농어업직 줄어 A12면
		내용	한국고용정보원은 IT 업종 일자리는 늘고, 단순 사무직종 일자리는 줄어든 것이라 전망. 또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 관련 직업은 늘고, 교사와 농·어업 일자리는 줄어든 것으로 보임

* 금일 중앙일보는 관련 기사가 없습니다. <끝>